

사위가 서서히 밝아지고 한 사람이 나타나 흰 종이 위로 올라선다. 경계에서 잠시 망설이다 이내 무언가에 끌리듯 조금씩 앞으로, 그리고 아래로 움직인다. 아무것도 — 어쩌면 ‘바깥’조차 — 없는 무대에서 흰 종이는 그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공간이자 그곳에서 유일하게 인력인력을 발하는 사물. 무너지거나 잡아 먹히며 그는 바닥에 닿는다. 한참을 꿈틀여도 제자리. 애초에 얼마나 갔는지를 셈하기엔 너무 빈 공간. 아무 장애물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편안히 유명하지 못하고 신음하듯 뒹군다. 느리고 느려도 시간은 흘러서 혹은 몸은 움직여서, 그는 마침내 반대편에 다다른다. 인력을 이겨내고 바깥으로 나간다. 하지만 그곳은 좁디 좁다. 곧게 설 수 있고 편히 걸을 수 있지만 아무 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잠시 눈알을 굴릴 뿐이다. 결국 돌아온다. 아무것도 읽을 수 없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곳으로 — 과거로.

#1_ 텅 빈 편지(지)

“축하 카드는 텅 비어 있었다.”¹ 빠르게 난폭하게, 그러나 모종의 망설임을 담아 반복되는 이 말이 쓰지 못한 편지에 관한 것인지 기다렸으나 받지 못한 편지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꿈에서 본 편지에 관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저 꿈이란 과거의 총합임을, 겪은 것, 겪었으나 다 소화하지 못한 것, 겪고 싶었던 것, 겪고 싶었으나 길을 찾지 못한 것들이 뒤엉킨 것임을 알 뿐이다. 부치지 못한 편지와 받지 못한 편지가 한데 섞인 것임을 알 뿐이다. 그리하여 나는 아마도 열지 못한 무대에 관한 것, 그 와중의 꿈과 편지에 관한 것일 이 춤을 그저 과거에 관한 것으로 읽기로 한다. 희게 펼쳐진,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고 어떤 빛이든 그대로 반사하는 저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과거의 은유로 읽기로 한다.

그리고 실은 과거란, 우리가 겪지 못한 것이거나 그저 겪었을 뿐 말할 수 없는 것임을 또한 알고 있다. 충분히 겪었다면 — 온전히 그 순간에 빠져들었다면 — 그 순간 우리를 관찰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자아는 남아 있지 않았다. 충분히 말할 수 있다면, 충분히 관찰하고 기억했다면 그 순간 그것을 다 겪을 수 있는 자아는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과거란 언제나 내게 속했으나 내 것이었던 적 없는 것, 결코 부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던 편지, 흔히 그러하듯 내 것이지만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부유하는 꿈이다. 말이 되지 않고 기억도 흐릿하지만 이튿날 내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꿈. 결코 끝인사를 쓸 수 없을 것임을, 보낼 수 없을 것임을 알면서도 종일 꺼내지 못한 문장을 곱씹게 하는 그런 편지.

#2_ 결심과 소진

허락되지 않는 바깥을, 그러니까 실은 그저 경계였을 뿐인 곳을 잠시 탐하고 돌아왔을 뿐이므로 많은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어쩌면 인력에 저항할 힘을 조금은 얻었을까. 움직임은 한결 가볍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텅 빈 채 아무런 지침도 주지 않으므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방금 배운 시선을 이곳에서도 던져 보지만 허공에 그것이 가 닿을 데는 없으므로 그 역시 무의미한 움직임이다. 그러다 자신을 마주친다. 저에게도 속을 내비치지 않는 자신 앞에서 그는 그저, 기른 적 없는 머리, 처음부터 영킨 채로 돌은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고르고 속을 뿐이다. 둘은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 내가 지내 온 시간이 나를 만든다면 나의 과거는 곧 지금의 내가 되겠지만 나의 과거는 나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에, 둘은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

두고 나아가려는, 이를테면 결심이 무언가를 달라지게 할까. 그는 과거의 자신을 어딘가로 안내해 부치지 못한 편지를 옮게 한다. 부치지 못했거나 쓰지 못한 편지를 불태운다. 과거의 자신을 한쪽으로 — 탐했으나 즐길 수는 없었던 갈 길 없는 바깥 혹은 경계로 — 물리고 흰 천을 덮는다. 바닥을 걷어내고 수렁이었던 백지를 무대로 만든다. 길게 찢기는 수렁 너머에 몸을 숨기거나 관객에게 등을 내어 보이며 수렁 위에 자신을 새긴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산뜻한 새 출발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유명이, 숯제 망령이 된 과거는 전보다 혹독하게 그를 다그친다. 소음과 생채기를 남겼을 뿐 종이는 여전히 희다. 몇 번이고 옷을 벗어도 그의 몸에는 같은 거죽이 씌워져 있다. 과거로부터 흘러나오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말을 받아쓰는 데 급급하다.

말은 갈수록 빨라진다. 그의 호흡도 거칠어진다. 육박해 오는 과거에 떠밀리며 그는 과거밖에는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한다. 터져 나오는 것들을 전부 받아쓸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그나마도 남에게는 보일 수 없는 흰 글자들, 그나마도 사방으로 떠밀리며 흩어 쓰느라 이어지지 않는 문장들을 새길 뿐이다. 점점 지쳐 간다. 받아쓰기는커녕 떠올리지도 못할 만큼, 정확히 말하자면 밀려오는 과거가 아무리 세차게 휩쓸어도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한 채 그저 뻘어 숨을 몰아 쉴 수밖에 없는 만큼

¹ 공연 중에 낭독된 문장. 아래 어딘가의 인용문도 마찬가지로 극장에서 읽힌 말이다.

지친다. 숨을 가다듬으면, 잠시 잤아들었던 과거가 다시 돌아온다. 전만큼 무섭지는 않다. 다 회복하지 못했으므로 아마도 많은 것을 놓치고 있을 테다. 과거는 여전히 산발적인 파편이어서 그는 혹은 우리는 별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3_기대어 쉬는 자의 등

그를 구속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심이 아니라 소진 혹은 피로다. 다 따라가기에는, 다 감각하기에는 너무도 지쳐버렸기에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 보인다. 어쩔 수 없이 바닥의 인력에서 벗어나 이곳을 유영해 볼 수 있다. 과거의 말들은 여전히 바스라져 떨어지지만 이제는 흘러 보낼 수 있다. 그것을 음악 삼아 춤 출 수 있을까, 춤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을까. 쓰러지는 대신 누울 수 있게 된 그는 무대 구석구석을 몸으로 훑는다. 한쪽으로 밀어 둔 쓰다 만 편지들을 꺼안거나 그 속에 파묻혀 몸을 숨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의 다른 이름은 불안이어서 이런 말들은 아무런 확신도 주지 못한다. 과거가 다시 세차게 달리기 시작한다. 어두워진 무대 구석을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위에서 울리는 음산한 음악이 엉킬 때,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킨다.

다행히 불안의 다른 이름은 자유여서 그는 마음껏 움직인다. 허우적거릴 수도 기어 다닐 수도 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별도 섭렵도 되지 못한다. 그렇게 돌아다니고도, 솔하게 눈알을 굴리고도 그가 “이 방에서 찾지 못한 것은 문이다.” 과거에 시달리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서 과거는 계속해서 커지므로, 애초에 내가 겪지 못한 나의 과거에는 내가 찾지 못한 것들이 무수하므로, 이 방에는 나갈 문은커녕 문을 낼 벽이, 기대어 쉴 벽이 없다. 휴식은 바닥에 늘어붙을 때만 — 수렁에서 눈을 뚫 수 없는 가장 괴로운 자세로만 — 허락된다. 나는 뒤늦게 깨닫는다. 이곳에서는 기기와 구르기, 걷기와 달리기, 서기와 눕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 그는, 그리고 나는, 영원히 그저 휩쓸리고 파묻힐 것임을. 이미 다 타고 재만 남았던 화로에서 다시 불이 피어 오른다.

벽도 바닥도 없는 여기에서 기댈 데는 하나뿐이다 — 쉬지 않고 닦쳐 오는 과거의 바람. 몸을 낮추어 바람을 피하고 수렁에 빠져드는 자세가 아니라 직면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진짜 휴식이다. 수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쫓기며 받아쓰는 과거 말고도 무언가가 적힌다. 과거를 바라보며 그 바람에 기댄 나의 등에 무언가가 적힌다. 언제까지고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새로운 것은 모두 등에 적힌다. 아니, 찍힌다, 도장처럼. 오로지 나를 떠미는 과거의 힘으로. 과거와 싸우는 나의 힘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무력함으로. 또 한참이 지나면 나도 나의 등을 보게 될까. 하지만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사이 나의 등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므로, 바로 그 때 무엇이 적히고 찍혔는지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떠밀릴 것이다.²

더 이상 그가 피하지 않으므로, 유령이기를 그치고 다시 온몸을 드러낸 과거가 그의 곁으로 온다. 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까. 숨긴 것이 적어졌다. 조금은 더 읽힐 수도 있을 무언가가 되었는지, 혹은 노기怒氣조차 숨기지 않으려는지. 엉킨 머리를 주고 받아도 이것은 화해가 아니다. 항복하여서 혹은 암전히 기다리며 무릎 꿇을 뿐이다. 이제 둘은 마주 보는 대신, 등을 같은 방향으로 내고 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우리가 있었다.

덧붙는 존재들: 배신하며 함께 하는³

이 — 꿈에 관한 — 공연을 보고 악몽을 떠올린 이들이 있었다. 여기저기가 음산하고 대개 알 수 없으므로, 그러나 피할 곳을 주지 않고 다가오므로 그랬을 것이다. 기꺼운 광경은 아니라 해도 과거를 들여다 보는 일은 보통 그러하므로 나는 악몽을 떠올리지는 않았다. 겨우 두 주의 간격만을 두고 어느 살롱에서 열린 두 번째 공연이 어찌면 더 악몽에 가깝다. 채 잇기 전에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죄어든다는 점에서. 관객은 무대를, 정확히는 무대라기도 애매한 흰 종이를 둘러싸고 앉는다. 관객이든 무용수든 조금만 크게 움직여도 닿을 수 있는 거리다. 잠시나마 기웃거렸던 바깥이 이곳에는 애초에 없다. 하나씩 자리를 채우는 관객들은 별 수 없이 그보다 먼저 무대를 밟고 발자국을 남긴다. 이렇게, 두 번째 공연은 침범과 포위로, 순제 배신으로 시작된다.

(위에서는 과거의 나라고 칭했던) 퍼포머가 읽었던 문장을 관객들이 한 문장씩 돌아가며 읽는다. 친절하게도 종이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읽지만 그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예상하기 어렵다. 그를 좇던 파편들에 여러 개의 목소리가, 여러 개의 리듬이, 여러 개의 실수가 더해진다. 한층 더 파악하기 어려워진 과거가 그를 몰아 세운다. 하지만 이 악몽 속에서 그는 어딘가 편해 보인다.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도 그의 곁에는 그를 지켜보는 이들의 발이 있다. 관객들은 그와 같은 조명 아래서 존재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눈알을 굴릴 일이 더는 없다. 발버둥치고 뛰쳐 나가려 애쓰는 대신 그는 이

² 과거를 생각하며 공연을 보다 내가 등을 떠올린 것은 아마도 이 공연의 드라마터그 하은빈의 글 「같은 꿈을 꾸는 꿈」 덕분이다. 과거를 보는 이를 미는 바람을 떠올린 것은 아마도 발터 벤야민의 「역사철학 테제」로부터다.

³ 앞은 포스트극장에서의 공연을 보고 썼다. 아래는 살롱 초고에서의 공연을 보고 덧붙이는 말이다.

따금 발들과 맞닿고 시선을 교환하며 천천히 무대를 누빈다. 함께 악몽을 구성하는 수많은 몸들과 함께,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서로를 알지 못하는 이 몸들과 함께, 외로움 없이 떠밀린다. 밀려간 곳에는 또 다른 몸들이 있다.

그는 갇혀 있지만, 갇혀 있기는 관객도 마찬가지다. 바로 옆의 관객도 맞은 편의 관객도 흰히 드러나 있다. 이미 서로의 목소리를 알렸다. 숨을 곳도 없고 바깥을 탐할 길도 없는 이곳에서, 무대 위의 두 몸과 객석의 여러 몸은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의 신경을 긁는다. 오로지 서로를 위해 — 제 몫으로 주어진 뜻 모를 말을 전하기 위해, 무심코 발을 움직이다 그나 옆 사람을 차지 않기 위해, 혹은 무대 위를 기어 다니는 벌레를 한쪽으로 치워 주기 위해 — 서로를 경계한다. 이렇게, 온갖 속도와 문장으로 그를 닦달하는 목소리들이 실은 그의 목소리였음이 드러난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과거에, 꿈에, 혹은 쓰지 못했거나 부치지 못한 편지의 문장들에 시달리는 것이 실은 애초에 목소리가 여럿이었기 때문임이 드러난다. 어떤 후회도 순전히 나만의 것은 아니어서, 혹은 외로이 헤매는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어서, 안전조차 없는⁴ 이 좁은 공간을 비집는 악몽은 이제 오히려 느긋하다.

나를 배신한 내가 끝내 나를 버리지 않고 곁에 있기에, 이제 무릎 꿇는 대신 편히 눕는다. 지쳐 쓰러질 때면, 언젠가 또 나를 배신할 내가 나에게 무릎을 내어 준다.

⁴ 극장이 아닌 이곳에는 창이 나 있다. 높은 곳에 뚫린 열리지 않는 창은 탈출할 길은 전혀 되어주지 않고 그저 바깥의 빛을 끌어들인다. 모든 조명이 꺼진 순간에도 이들은 서로를, 혹은 악몽의 광경을 보고 만다.